

THE FOLLOWING INTERVIEW WAS CONDUCTED MAINLY IN KOREAN AND QUESTIONS AND ANSWERS ARE TRANSCRIBED IN HANGUL. THE TRANSLATION FOLLOWS THE HANGUL IS IN ITALICIZED ENGLISH.

Yeon Hong (00:00): My name is Yeon Hong. Today is March 28, 2023 and I am interviewing Gyonghui Kim through Zoom for the Colby College Korean Oral History Project. Do you agree to grant the college permission to archive and publish this interview for educational purposes?

Gyonghui Kim: Yes

YH: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Okay, then we will get started.

GK: 네.
Okay.

YH (00:36):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for a brief self-introduction?

GK: 네. 제 이름은 김경희입니다. 저는 75년 3월 1일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94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했고요. 졸업한 이후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2003**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딸을 셋 낳고요. 그리고 미국생활 남편의 유학생생활과 목회생활을 돕다가 아버님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병환으로 인해 한국에 들었다가 현재 다시 돌아와서 미국 뉴욕 체스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Yes. My name is Kim Gyonghui. I was born on March 1st, 1975 in Andong, South Korea. I entered Ewha Womans University in 1994 majoring in social welfare. After I graduated, I worked as a social worker, met my husband and got married, then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2003. I also had three daughters. After helping my husband's studies and life as a pastor in the States, we went back to Korea because of my father-in-law's sickness, and then came back to America, where we are living in Chester, New York today.

YH: 감사합니다.
Thank you.

GK: 네.
Of course.

YH: 일단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GK: 긴장됩니다.
I am nervous.

YH: 긴장되나요?
You're nervous?

GK: 네
Yes.

YH: 알겠습니다
I see.

GK: 네.
Yes.

YH: 그러면 처음은 간단히 네 오늘 일상은 어땠나요?
Then simply, what did you do today?

GK: 오늘 병원 다녀왔습니다.
I went to the hospital.

YH: 네. 알겠습니다.
Yes, got it.

GK: 네 [웃음]
Yes [haha]

YH: 그러면 요즘 하루는 어떻게?
What does your daily life look like?

GK: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일하는 날은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Well, I send the kids off to school in the morning and go to work in the afternoon if I have work. When I don't work, I do household chores and go to church.

YH: 무슨 일 하세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GK: 네. 홈케어도 하고 있구요. 하루 이틀 정도는 클리너도 나가고 있습니다.
I work as a home caregiver. Some days, I work at the dry cleaners too.

YH: (02:44) 음. 그러면 일단은 네 조금 interviewee에 family background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Okay. I will now ask about the interviewee's family background.

GK: 네, 그러세요.
Okay.

YH: 가족 배경은 어떻게 돼 있나요?
What is your family background like?

GK: 어떤 배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의 부모님은 구세군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서울 근교의 부천이라는 곳에서 두 분이 재미있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What kind of background do you mean? Both my parents worked in the Salvation Army as missionaries. They retired and now are living happily in a suburb called Bucheon, right outside of Seoul.

YH: (03:35) 영어도 해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use English?

GK: 네 그러세요.
No, I don't mind.

YH: 어렸을 때, 초등학교때, 초등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When you were younger, in elementary school, what was your elementary school life like?

GK: 아 초등학교 잘 기억이 나는 부분은 별로 없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입학했을 때 제가 살던 곳이 너무 너무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 아이들 중에 제가 제일 컸어요. 그 키가 지금 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가에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별 다른 것도 없이 열심히 네 공부하며 지냈습니다.

I don't remember much of elementary school but I know when I first entered elementary school, the place I lived in was a very, very rural area. I was the tallest one among the kids. I think I am still the height that I was then. I was the model student, listening to my parents well, studying hard, and I was loved by my teachers. There wasn't much special, but I did study hard.

YH: 그때 당시에는 학교 급식 같은 게 있었나요?
During that time, did the school provide lunch?

GK: 없었죠.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녔죠.
No. I packed dosirak (prepared lunch box).

YH: 주로 어떤 도시락
What kind of dosirak did you usually pack?

GK: 어머니가 사주고 거 같은데 그 당시는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냥 집에서 먹었던 걸 사가지고 갔던 거 반찬을 사가지고 갔던 거 같아요.
I think my mother packed my lunch for me but I don't remember. I think she just packed the food and banchan (side dishes) that we ate at home.

YH: 집에서 먹던 반찬은 주로 어떤 반찬이었어요?

What kind of side dishes did you eat at home?

GK: 글썸요. 밥이랑 보통 먹었던 밥이랑 김치는 기본적으로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밀반찬 정도? 그러면 밀반찬은 오징어 볶음 멸치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물 종류 그리고 이제 계란 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Well, we commonly ate rice and kimchi, and just some simple side dishes? Those side dishes were usually ojingeo bokkeum (spicy stir-fried squid), myeolchi (anchovies), some namul (seasoned greens), eggs and ham.

YH: (05:24) 그러면 during your childhood에서 어렸을 때 깊게 남은 기억이나.

Do you have any deep memories from your childhood?

GK: 음식에 관련해서?

About food?

YH: 음식과 관련 안해도 그냥 깊게 남은 기억 같은 게 있나요?

It doesn't have to be related to food—just any deep memories.

GK: 가족 관련은 잘 우선은 초등학교 때 저희는 그때 이제는 요즘에 소풍 **daily trip** 이런 걸 학교에서 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근처에 뭐 **amusement park** 이렇게 있는게 아니니까. 뭐 강가나 산 같은 때 이렇게 놀러 갔는데 하루 갔는데 갔는... 소풍 간다고 되게 예쁘게 입고 도시락 김밥을 싸들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를 쫄딱 맞고 집에 온 기억이 초등학교때 있구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웅변을 했는데 아세요? 이제 앞에 나가서 **speech**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한국이 남한 공산당 반공산당 이런 반공 관련되서 **catchphrase**도 만들고 이제 어떤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약간 낭송 앞에 나가서 스피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해보라고 해서 스피치를 했는데 제가 떠난 말이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빨리해서 선생님 나중에 '너무 빨랐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도 있고. 음 집에서 남동생이랑 뭐 놀다가 싸운 기억도 있고 많이 항상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런 기억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uring elementary school, we went on trips. And since there weren't amusement parks or anything around, we would go to the lakeside or mountains. One day, we were going to go on a picnic so I dressed nicely and packed my dosirak (prepared lunch) with kimbap, but it rained so much. I remember coming home drenched in rain. And during [high]school, I had to do a speech for a speech contest. During that time, there was a lot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so people would make catchphrases and draw about anti-communism. There was a recital where people spoke about this topic and my teacher recommended that I do it. But what I remember most was that she told me that I spoke too fast. At home, there are a lot of memories of fighting with my younger brother.

YH: (07:15)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족보 사건? 족보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I remember from when I was younger about the jokbo (genealogical record) issue? Can you talk a bit about the record?

GK: 한국이 어쨌든 간에 유교 이제 **confucianism?** 유교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는 아니지 **2, 3? Generation before?** 아들이 되게 중요하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래서 저희 아빠, 저희 아버지가 장남 이제 **oldest son**인데 항상 그 **oldest son**에 대한 약간 그 가족의 약간 그 **honorable**하고 이렇게 챙겨주는 야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의 첫째 아이가 저였던 거죠. 딸이 아 아들이 아니야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저희 아빠에 **brother** 작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낳구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다음 같은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같은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그때 그 당시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great grandfather** 같이 살았는데 그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둘째가 아들을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첫째가 아들을 낳아야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중심 남자 중심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시골에 명절 때서 내려가면은 증조할아버지가 옛날 그 갓 갓이 아니라 훈장인데 쓰는 이렇게 뽕족뽕족한 그런 모자 같은 게 있어요. 그 모자를 쓰시고 도포를 입으시고 한국의 훈장님들 옛날에 선생님들 그 마을의 선생님들? 이렇게 입으시고 아이들의 짝 불러 모아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족보를 패밀리, 질서에 있는 **book**을 책을 우리가 **30** 몇 대 손인가? 이제 그만큼 **generation**인데 그거를 이제 책을 이렇게 착 펼쳐 놓으시고 어떤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이 있었고 저희 아이들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물론 그 족보에는 여자들은 없습니다.

Well, because Korea is a country based on Yugyo (Confucianism), especially the elderly 2-3 generations before us, thought sons were very important. My appa (father) is the oldest son, and there was always some kind of honor given to the oldest son and his family. But my appa's first child was me, a daughter, not a son. And my uncle (father's younger brother) had a son, then my mother had a son in the same year. During that time, we lived with our jeungjo harabeoji (great-grandfather) but he said that there was no use in the second child being a son because he wasn't the first child. So everything revolved around sons and men. Whenever we went down to the countryside for the holidays, my great grandfather would wear this kind of spiky hat. He would also wear a dopo, like how teachers would wear a long time ago. Then, he would call all of the kids to sit in front of him (while kneeling). Then he would take out the jokbo (genealogical record book). And within that book, there were the past 30 generations of our family, which he explained to us. Of course, there were no women in this book.

YH: 그렇군요.

I see.

GK: 네

Yes.

YH: (09:46) 그러면 사건이 네 Did this change like your actions or the way you saw the world?

Then did this situation change your actions or the way you saw the world?

GK: 어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우 그런 **treatment** 대우를 겪은 다음부터 아 내가 무조건 남자들은 이거 먹어야겠다.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물론 운동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 심리. 특별히 그 남동생 남동생이 제 부모님이 공부를 늦게 하시는 바람에 저와 남동생이 할아버지 집 살았는데 남동생이 한 살 두 살 거의 왕같이 그 집안에서 그렇다고 저한테 나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절로 나쁘게 하신 건 아니지만 정말 그게 아니라 그 집에 왕같이. 예를 들면 그 당시 저희 집에 **tv** 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들 **tv** 없었는데 **tv**가 있었는데 그 **tv** 에서 광고가 나오면 남동생이 한 살 두 살 때쯤에 ‘할머니 저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주는? 네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보면서 나는 정말 내 스스로 나의 권위 나 인정받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Yes, of course. Because I was treated like so since I was younger, I always had thought I had to win against men. Whether it was through studying since I obviously, couldn't win physically (sports). Especially because my parents started their studying late, I used to live with my namdongsaeng (younger brother) at my grandparents house. My younger brother was one or two but was treated like a king in the house. I don't mean that they were bad to me but he was the king. At that time there was a tv, not many people had a tv but there was a tv. When the tv would play ads, my younger brother would say "Grandma, I want to eat that" and it would be brought to him. It was like that. Yes there was events like that. So, as I grew up seeing this, I realized that to gain authority and my own recognition, I thought I had to give it my best to live.

YH: (11:12) Moving on, do you have any major like historical events of Korea while you were living there that you remember? For example 1987 학생 운동이나 (Student Protests)1988년 올림픽 (Olympics) 같은 흑시...

GK: 엄밀히 얘기하면 88년 올림픽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러게 보면 되게 어릴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올림픽이 이렇게 올림픽을 하고 마스코트가 호랑이 호돌이였는데 그걸 같이 **tv**로 보긴 했지만 그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하는 약간 자랑스러움이 있었지만 그게 나의 개인적인 삶에 그렇게 크게 와 닿는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그 당시는 대학 학생 운동이 남아있긴 했었어요. 남아있긴 했지만 그게 80년대에 막 그때 광주 민주화항쟁 같이 정말 정부를 전복식 정부에게 반대되는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한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글이 이제 그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 어쨌든 간에 **Christian**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대학에서 **Christian**? 어떤 모임들? 이런 거 활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런 큰 이슈들보다는 이제 **Christian** 활동들도 많이 하면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긴 해요.

Technically, the 88 Olympics were when I was in 6th grade. If you look at it like that, it happened when I was young. So, I remember things like the Olympics taking place and hodori the tiger mascot and I watched it on the tv. I had a sense of pride that it was my country but I didn't change anything in my personal life. When I entered university, there was still remnants of the Student Movement/Protests of the time. But it wasn't like the Gwangju Uprising in the 1980s, where they tried to overthrow the government. So I didn't feel like it had a big impact on my life. And I was, basically, born and raised in a Christian

household my whole life. So in college, I was part of Christian activities and clubs so instead of larger societal issues I was more focused on religious ones.

YH: 어렸을 때부터 Christian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네요.

You have done a lot of Christian activities since you were young.

GK: 뭐 어렸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살던 곳이 다 시골에 조그마한 동네였기 때문에 교회활동 집활동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이 저의 **whole life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 대학을 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형태의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해야 하나요?/ **Well when I was younger I thought it was something I had to do. I lived in a rural area and it was a small neighborhood so it was safe to say my whole life was just church activities, my house life, and my school life. It was after I went to college that I met more people. Different types of people.****

YH: (13:33) 그럼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도 Christian 생활은 계속 꾸준히 했던거구요./ *So then you were a Christian throug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GK: 교회 활동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구세군의 직업상 구세군은 좀 더 명령 약간 구세군이 **Salvation Army가 한국에서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약간 **army** 군대 약간 이런 느낌이였기 때문에 그 **Hierarchy** 구조라고 해야하나? 위에서 명령을 하면 옮겨 다니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 발령지를 이제 세 군데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저학을 다니면서 세 개를 다닌 거예요. 일 년 몇 달 다니고 그 다음에 일 년 다니고 나머지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가 사춘기실 친구들 만나기 힘들고 막 이럴때인데 그럴 때 이제 뭐랄까? 그 친구들 사귀는 것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특히나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 당시가 제 인생의 거의 암흑기라고는 할까요?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It was that I did church activities.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Salvation Army, job wise, has a more hierarchy structure like an army. So if orders came from above we had to move accordingly. In my parents' case, I was in middle school when they moved to 3 different places. So I had to go to 3 different middle schools. A year, maybe a few months then I would move again. So I was going through puberty and it is a time where it's hard to make friends, and moving from the countryside to the city made it difficult to study as well. You can say it was the darkest period of my life. It was a difficult time.

YH: (14:57) 그럼 고등학교는 그러면 세 번 중학교는 세 번 옮겼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Then you moved three times in middle school, what about highschool?*

GK: 고등학교는 하나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과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나름대로 서울 가까이에 좋은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렇듯이 친구들 많이 사귀긴 하지만 모든 **focus가 이제 대학과 공부에 인데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나 저희 때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을 고등학교 일 학년 때부터 야간자율학습 **10**시까지, 그리고 **고3 11**시까지 저희 학교생활이 **whole life**였는데.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과외 활동이랄까?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There was only one high school. I graduated*****

highschool from a school in Gwacheon, it was a pretty good school in Seoul, and like most high schoolers, I made friends but the main focus was studying to go to college. Especially in my case, late study hall (yaja) was until 10pm. And in my third year it was until 11pm so my school life was my whole life. Even so, I met friends who I would have prayer circles with like an extracurricular activity. It was kind of like that.

YH: (15:57) 그러면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나요?

Did you take suneung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Daehak suhang neungnyeok siheom, abbreviated "suneung")?

GK: 제가 수능 일 세대입니다.
I am part of the first generation.

YH: 어땠나요?
How was it?

GK: 저희 전까지는 이제 학력고사라고 해서 약간 다른 형태의 시험이었고 저희 때 그 미국에서의 **sat** 를 들여와서 이제 수학능력 평가라는 인제 그 시험을 보기 시작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일 년에 시험을 두 번 봤어요. 네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지금은 한 번 보는데.

Before us there was a scholastic exam like test and during my year they brought over the SAT from the US. They called it suneung for short. So we were the first and last year to take two exams in a year. Once in the summer and another in the winter, so twice even though you only take one now.

YH: 그럼 그걸로 시험으로 대학을 간 거 고요?
Did you go to college with those tests?

GK: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수학, 이제 보통 내신과 수능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대학교에서 보는 본고사라고 에세이를 가서 학교에 가서 쓰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수능이 처음 도입된 시기였고 본고사를 보는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학교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고3 때 저희 부모님 이사를 가셨어요. 과천에서 인천으로 차로는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상황 고3 여름을 지나서 전 혼자 자취 생활을 했죠. 학교에서 한 15분 20분 거리 버스 타는 거리에서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두개 싸들고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온고 네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Technically, yes. Usually you go to college with your overall grades, the suneung and then you take the college's bongosa test which is like an essay you write at their school. 3 things. But in my case, it was the first year the CSAT was put into place and there weren't many places that did the essays. Only the really good schools like SKY. Seoul University, Yonsei, and Korea University. And when I was in my third year my parents moved from Gwacheon to Incheon. By car 1 and a half hours. So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couldn't follow them. So my third year after the summer I lived by myself. It was a place 15 or 20 minutes from the school by bus. In the morning I would wake up by myself and pack two dosiraks (prepared lunches) and go back and forth from there. That was how I lived.

YH: 17:34 그러면 그때부터 요리를 조금씩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 부터

Does that mean you started to learn how to cook?

GK: 아니요. 요리는 그때는 주로 밥만 하고 엄마가 반찬을 가져다주면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가져간. 요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전도 원악에 요리에 관련,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요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 직장 다니면서도 사실은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직장생활 3년하는 동안도 제가 요리라고 해보면 라면 끓이는 것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 어머니가 가끔 교육이 있거나 며칠 비우시면 어머니가 다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아빠가 차려주고 저는 먹고 나가고 약간 이런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No. The only cooking I could do was rice and my eomma (mother) would bring banchan (side dishes) and I would use those, I didn't necessarily cook. I didn't have a lot of interest in cooking so I didn't bother to learn. And when I got a job, the truth is, even after college and 3 years of working, the only cooking I did was make myself ramen. And when my mother would have training or if she would be gone for a while, she would make banchan, my father would bring them, and I would leave after eating. It was that kind of life.

YH: 그러면 다시 대학이랑 직장얘기로 가면 대학은 언제 어떻게 어디를 나왔어요?

Then if we go back to college and work, when and what college did you graduate from?

GK: 수능을 보고한 다음에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제 안에 약간 남학생들에 대한 그런 경쟁심 (전화벨소리) 죄송합니다. 경쟁심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남녀공학을 갔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수능을 보고 본고사를 보지 않는 학교들 중에는 이화여대가 가장 높은 학교인 거예요. 높은 수준의 학교.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화여대를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간에 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저희 또 친정 부모님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fter the CSAT I thought a lot about where to go. I still had the competitive spirit so I wanted to go to a coed school but amongst the schools that didn't have the essay, Ewha was the highest ranked. So I went to Ewha. And since I did church activities since I was young, I was interested in helping people and my parents encouraged me to pick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YH: (19:33) 그러면 대학은 이제 4년 다닌거고 네 직장은?! *Then after 4 years of college it was work? Yes*

**GK: 3년
3 years**

YH: 그럼 직장은 어디를 다녔나요?

Where did you work?

GK: 첫째에는 제가 대학 때 다니던 그 서클? 그 클럽 활동인데 클럽 활동이 모임이 **ccc** 라고 한국 기독교 대학 선교회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훈련 받으면서 거기 안에 있는 그 이제 편집국 책만 들고 하는 그런 곳에 일 년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세군 내에 있는 노인요양원, 사회복지 시설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The first year in college the circle I was in, the club was called ccc, it was like a Korean campus club for Christians. (KCCC -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While I did training there, I worked in the editorial department, a place for making books for a year. After that I worked inside the Salvation Army at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YH: (20:24) 거기서 일하는 일하는 동안에 이제 깊게 남은 기억이라던가.

Do you have any strong memories from your time there?

GK: 어른들 모시고 어른들의 생활을 돌봐드리고 거기에 주로 계시는 분들 사는 분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 그분들 이제 편하게 하고 생활하는 것들을 어 도와드리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죠. 사람 사는 거랑 똑같이. 그런데 이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음 자식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생활을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신데 같이 모시지 않고 약간 버려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같이 이제 거긴 요양원의 계시는 분들이 한 **50명** 넘게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돈이 많아도 절대 돈을 다주면 안된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갖고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오고 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It helped the elderly who usually lived there. And because it was with the elderly that lived there, I would help them and run programs, manage volunteers, and so on. But while I took care of them, they were very healthy and could live by themselves, it felt like they had been abandoned. There were around 50 people at the nursing home. As I looked at them I thought a lot about family. They said that even if you have a lot of money you shouldn't give it all to your children, you should keep the money until you die. That way the children will visit with their children or else you will be abandoned. It broke my heart to hear them say stuff like that.***

YH: (21:53)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 직장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boss? 그 위에 계신 분은 행동이나 그런 게 많이 짜증 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From what I remember you had talked about your boss at one of your jobs. You mentioned that their actions made you very frustrated.

GK: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겪은 **boss**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나오시는 분이는데 이분이 어쨌든 되게 창피한 일이긴 한데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가끔 오셔 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먼저 공문도 발송하고 행사 행사 같은 것도 준비하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너무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 사랑을 구박을 하고 면박을 주고 혼내고. 이제 그게 일을 잘못해서 혼나는게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정도의 사람 혼내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런 걸 통해서 본인이 올라가나 본인의 자존심이 올라가나 저렇게까지 혼내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의 감정을 감정 쓰레기통 같이 이렇게 막 던져내고 만드는 그런 경험도 있었죠.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This boss was one of the people I experienced but they didn't come everyday. Every once in a while, they would show up. It is very embarrassing but they were an Ewha University professor in the nursing department. This person who only showed up scarcely, while we do all the work like promotion and programing events. They would treat other employees under them as less of a person and scold them and harass them for things not related to work. It was to the point she would attack the person's personality. Why did they have to do that? Did they feel pride in attacking employees, or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by putting other people down? It turns out that you will meet many people like that throughout life. There are people who cannot control their own emotions so they take it out on people in front of them or their own children and use them as their own emotional trash can. But of course there are good people too.

YH: 그럴군요.
I see. Then

YH: 23:56 제가 알기로는 네 연애를 시작한게 어 그 저의 고모 때문에 라고 알고 있는데 네 혹시.. *From what I know, your dating was thanks to my aunt, is that correct?*

GK: 그러니까 한국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면 선 **blind dating, blind meeting**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느낌. 이거 어른들과 어른들이 중간에 끼인 느낌. 그리고 소개팅이 약간 좀 가벼운 느낌 그래서 이제 저희 남동생이라 외삼촌이랑 남편의 여동생이라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닌 거예요. 대학을. 남동생은 이제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복학을 했으니까 저의 남동생이 우리인지 아가씨랑 같은 학년에 같이 공부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는 나 오빠가 있는데, 어 난 누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선을 되게 많이 봤을 때 좀이라서. 너무 싫은데 전화 남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니까 한번만 만나 만나? 그래서 이제 어 그래 편하게 생각할게 편하게 나갔어요. 편하게 만났어요. 만나서 어 같이 아주 편하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나갔죠. 근데 왜 남자가 양복을 탁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되게 부담스럽고 진짜 어색하고 그런 상황에서 밥을 소개시켜준 두 명과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전공이 다 사회복지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같은 요양원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공부에 관한 이야기. 뭐 어쨌든 우리가 일하고 있는 필드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하고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돈만 내고 갔죠. 그리고는 저의 아가씨가.. 전.. 만나자마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해서 빨리 유학 가야된다. 나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너무 결혼이라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그런 결정이어서 난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만나지 말자. 그래서 집에 왔죠. 근데 우리 아가씨가 이제 어 자기 오빠한테 이제 그래도 마음에 들었으면 연락을 한번 더 해라. 그래서 연락을 연락을 받았고 그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어떤 수련회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힘들고 지치니까 그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영화를 한번 봤죠. 영화를 보고 차를 마셨는데. 그때 본인은이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In Korea if you don't have any chances to date you go on blind dates or meetings. There is also another one called sun which feels like a more formal meeting where there are adults involved. And a sogaeting is one that is more light and informal. My younger brother and my husband's younger sister went to the same school, college. My younger brother had gotten back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o he was in the same year as my sister-in-law. As their schedules overlapped, they mentioned they both had single older siblings and my brother called me. At this point in time I was doing a lot of suns and I didn't like it but I got a call from my brother saying this would be the last and only time he asked for a favor. So I said okay and went out comfortably. So I went very comfortably in a t-shirt and jeans. And some man was standing in a suit. It was very uncomfortable and I felt a lot of pressure but we ordered food and ate with the two that introduced us. But excluding my husband, the three of us were all majoring in social welfare, and I was working at a nursing home. So we had a lot to talk about. We talked about our studies. So my husband at that time just paid and left. As soon as we met my husband brought up marriage and stated that he needed to get married and leave to go abroad to study. For me that was very abrupt and uncomfortable and I did not want to marry, so we split and I went home. Apparently my sister in law told my husband that if he liked me he should reach out again. So accepted and met him again before this retreat he had to go to since after the retreat he would be too tired to meet. So we did. We watched a movie together and went out for tea. Later he told me that he thought "I need to marry this person", "I should hold on to this person".

YH: (27:13) 영화는 무슨 영화 봤나요?

Do you remember what movie it was?

GK: 기억이 안나옵니다.

I don't remember

YH: 그러면 만남을 말했는데 어디서 만났나요?

Where did you guys meet?

GK: 뭐 대학로의 혜화동에서 만났죠.

We met in Daehak-ro at Hyehwa-dong.

YH: 그렇군요. 서울인가요?

I see, it was in Seoul?

GK: 서울입니다.

Yes.

YH: (27:48) 그러면 그때부터 천천히 만나기 시작한 건가요?

Then did you two meet slowly after that?

GK: 아니에요. 천천히 안 만났어요. 그때가 6월이었죠. 그때 만나 두번째 만나 두 번 만났고 남편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을 갔다 와서 와서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만났을 때.

No, it wasn't slow at all. It was June then. We met twice then, and then he went on his retreat and we met once after. He asked me to marry him then. On our third meeting.

YH: 되게 빨리 움직였네요.

Wow, that was fast.

GK: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라고. 하나 일이 그냥 속 지나간 진행 되어가는 이런 느낌. 간단히 얘기하면은 6월에 만나고 7월에 이제 그 쪽 집에 인사를 하러 가고 8월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고 9월에 양가 어른들 만나고 10월에 그 야외 촬영 사진을 찍고 결혼식을 12월에 했습니다. *I Yea, after that we it was ilsacheolli, meaning everything just happened very quickly all out once after. To say it simply, we met in June, went to introduce myself at my to-be in-laws in July, August was my house, in September parents on both sides met, October was the photos, and we had our ceremony in December of that year.*

YH: 되게 빨리했네요.

Wow, that was so fast.

GK: 5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It all happened in 5 months.

YH: 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댁에서

Then did you live with your in-laws after?

GK: 결혼하고 시댁에 살았죠.

After marriage, yes.

YH: 29:04 그럼 거기서 이제 요리를 시작 배우기 시작했나요?

Then is that when you started to learn how to cook?

GK: 요리를 하기 시작했죠.

Yes, I started to cook.

YH: 음 어떤 요리를 처음에 배웠어요?

What did you learn first?

GK: 시댁은 되게 음식을 저희 친정같은 경우는 음식을 되게 간단하게 먹는 스타일이고 저희 시댁은 음식을 되게 챙겨먹는 스타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다가 원래 남편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학 갈 생각을 결혼식을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미뤄지는 바람에 거의 2년을 시댁에게 같이 살게 된 상황인거죠. **Almost 2 years.** 그래서 그때부터 인지 인터넷을 그때 막 인터넷을 뒤지면서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침부터 이제 국하고 밥하고 반찬을 하고 반찬은 밑반찬을 뭐 나물 같은 거 하고 고기나 생선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게 네 흠이었죠. 식구도 많았고.

My family eats very simple meals but my in-laws tend to really take care of their appetite with richer meals. Additionally, my husband was getting ready to go abroad in the following September after our December wedding. But that got pushed back for 2 years meaning that I lived with my in-laws for two years. So I started to search the internet for instructions and tips on how to cook. In the morning there would be bap and guk and banchan (rice and stew/soup and side dishes) which was usually seasoned greens and a meat or fish dish. But since I was new, I wasn't very good and it took me a long time.

30:20 [Cut-start] Not relevant to the interview

~~옥 분 남았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보낼게요.~~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임신부터 끝난 거야?~~

~~난 잠시만 조금 남았어요. 알겠어요. 시청자 네 들어온다 했나요?~~

~~녹음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다시 한번 보내게 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럼 끊겠습니다.~~

30:50[Cut-End]

YH: (30:51) 예를 들면은 뭐 이제?

For example?

GK: 그 전날 밤에 뭘 할까? 생각을 해놓고는 이제 그 전날부터 장을 보죠. 장을 어머니랑 같이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나물을 모아 야채를 뭘 살까? 그 야채로 어떻게 조리를 할까 생각해놓으면 제가 하나도 아는게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찾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이런식으로 콩나물 삶 콩나물 무침 하는법. 이런식으로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밥하고 반찬하고 국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The day before I would plan the menu for the next day and go grocery shopping. I would go out with my mother in law and she would say what menus would be good. What should I do with these vegetables? How should I cook these? I would think of questions and then ask the internet since I had nothing I knew. How to make doenjang jjigae (bean paste stew). Like how to cook bean sprouts, how to make banchan with the bean sprouts. I would search it on the internet and then do it the next morning and set the table with rice, side dishes and stew.

YH: (31:30) 그러면 어머니하고 그 시대에서는 배운 건 없구요?

Then did you learn anything from your mother-in-law during your time there? (regarding cooking)

GK: 배운 게 없진 아예 없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음식을 어머니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 며느리가 왔구나. 이제 며느리가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 어머니도 하셨어요. 어머니도

하시고 어머니는 보통 이제 뭘 하시는 하실 때 오셔가지고 이걸 저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There wasn't much I learned directly since my mother-in-law's thought process was "Oh, she is here now, she can do all the work". She still helped. She would come over while I was cooking and tell me this is how to do this and that.

YH: 그럼 직접 배운 거는 많이 없고요?
So there wasn't much that you learned?

GK: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There wasn't a lot.

YH: (32:10) 혹시 이제 반찬 중에 아니면 국 같은 거 아니면 만든 요리 중에 Story 같은 거 관련된 있나요?

Is there a specific banchan or guk that has a special story to it?

GK: Story...어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만들어 준 거 엄마가 만들어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는 되게 시골에 가나 한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저는 그 당시 그게 가난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되기에 이제 막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를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키우시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쓸 돈? 간식을 사 먹거나 애들이 뭐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없다. 이런 것이긴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가끔 이제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그게 이제 지금은 오 분이 크게 있는데 이런 오븐 말고 미니 오븐같이 조금만 약간 밥솥같이 커져 있는 이런 오븐이 밥솥같은 오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가 이제 그 과자를 과자라고 해봐야 밀가루, 설탕? 뭐 이 정도 있겠죠. 계란 휘핑해서 이제 계란을 막 저어서 이제 그 당시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막 저어서 거품을 내고 그리고 엄마가 그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 잡지에서 **scrapbook**을 만드신 거예요. 신문, 잡지 이런 거 잘라서 이제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필요할 때 그걸 보고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밀가루를 얇게 밀어서 이제 껍배기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 기름에 튀겨요. 사실 그럼 설탕도 많이 안들어가고 뭐가 없잖아요? 근데 조청이라고 꿀은 아닌데 찾아보니까 **grain syrup** 조청을 만들어요 집에서. 이제 꿀은 너무 비싸니까 그런지 뭐 정확히 뭐 조청을 만들어서 그 조청의 약간 꿀 시럽 비슷한 거를 그 튀김과자를 섞는거예요. 어 섞어서 그걸 이제 간식을 주시는데 많이 못 먹게 하시는 거죠.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통에다가 담아가즈고 **store** 해놓고. 하루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남동생이랑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아빠가 그 당시에는 엄마가 그 당시에는 그거를 우리 손이 안 닿는 곳에 놔두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책꽂이가 있는데 책꽂이 맨 위에다가 통을 이렇게 올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먹겠다고 남동생이랑 둘이 의자를 놓고 올라가는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걸 꺼내먹으려고 하다가 떨어트려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음식 엄마가 해준 뭐 간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Something I made? Or what my mother made me? When I was younger I lived in a very rural area in a very poor house. At that time I didn't know I was poor. My parents never said that we were poor or struggling and worked really hard so that we wouldn't feel that way growing up. Poor meant that we didn't have any money for extra things. Like snacks

but how much money were kids going to spend? It was just that we didn't have some things. But my mom would sometimes make us these gansik (snacks). Nowadays ovens are very large but we had this mini oven that was similar in shape and size to a rice cooker. She would make these gwaja (snacks) that were made with maybe flour, a little sugar, and a whipped egg. And there were no machines so she had to hand whip the eggs. And the internet wasn't a thing so she made this scrapbook with cutouts from newspapers and magazines and she would look at it when she needed to. One of the things in the scrapbook was thinly rolled flour dough shaped into a kkwabaegi (twisted donut) and fried in oil. Then you don't need a lot of sugar or anything, right? There was this thing called jochong, like a grain syrup, that she made at home. Honey was too expensive so she would make grain syrup and mix it with the fried dough. Then she would store it in a jar. She would give us maybe one or two a day. When my parents weren't home, she would put it somewhere our hands wouldn't reach. We had a tall shelf so it was on top of the shelf. So my brother and I pulled over a chair to try to get it but it was still too short. This was maybe around second grade? As far as I can remember. We tried to reach it and it fell off the shelf. There was a time like that. I remember a lot of food, snacks that my mom would make for us.

YH: (35:44) 그러면 부모님이랑 살 때랑 이제 시댁에서 살 때 제일 크게 차이 같은 큰 차이 같은 걸 느낀 스토리나 경험 아니면 이제 경험? /Then did you feel any larger differences from when you lived with your parents versus living with your in-laws?

GK: 음식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있겠지만 우리 친정 같은 경우 우리쪽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도 되게 소식한다고 작게 드시고 간단하게 작게 먹는 스타일이어서. 예를 들면 간식으로 좀 떡을 드셨다. 점심 저녁 사이에 배가 부르시다. 저희 아빠 같은 잘 안드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댁 같은 경우는 잘 먹고 많이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밥을 하는 입장이니깐. 밥 3기를 하는 게 매번지 이제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지금 생각하면 편하게 지금은 뭐랄까 노하우가 생겼으니깐 이렇게 해야지 뭐 할까 생각하면 이제 금방 금방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잘 모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고 너무 오래 걸리는거예요. 시간이. 그걸 만드는 시간이. 근데다가 내가 예를 들면 점심 저녁 4시쯤에 피자를 한 3판을 먹었다. 그건 간식인거예요. 그러면 저녁을 또 먹어야 되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런 가족적인 차이? 식생활 차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식구가 저까지 이제 6명 인데 다들 바깥에서 일을 하니깐 저녁을 같이 먹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고기가 있다. 집에 이제 생선이 있다. 그러면 항상 그거를 아침부터 구워요. 고기를 아침에 구워 먹는거야. 이제 출근 전에 이런식으로. 우린 항상 아침에 간단하게 먹었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죠.

Regarding food, as I mentioned earlier, my parents aren't the type to eat a lot of food. My father is the type to eat really small. For example, if he ate ddeog (rice cake) as a snack between lunch and dinner, then he doesn't have dinner because he is full. But my in-laws have a very healthy appetite, they eat a lot. So I am coming from the perspective of making the food. It's not easy making 3 meals a day, everyday. If I think of it today, it would be easy since I have that know-how. If I think of something I can get it done very quickly. But at that time I was new and very slow. Everything took a long time. And on top of that say if they ordered 3 pizzas at 4pm, then that is just a snack. Then you still need to

eat a full dinner. Regardless of being good or bad, it was a family difference. Diet? Difference in living style? Including me the family was 6 people, and since everyone worked, there was no time to eat dinner together. So my mother-in-law was the type, if there was meat or fish in the house, everything must be cooked in the morning. Before the family left for work. My family always ate very simply in the morning, so I felt this difference too.

YH: (37:53) 그럼 혹시 이제 가족이랑 살 때 몰랐던 이제 시대차이 같은 걸 느끼신 적이 있어요?
/

GK: 시대차이?세대차이?

YH: Like generational differences? 시댁에서 살면서.
Like generational differences while you were living with your in-laws.

GK: 우리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간에 저희 엄마 아빠랑 시부모님들이랑 **same generation** 이니까 에 그런 그런건 잘 못 느꼈던 거 같아요.
I don't know about that. Since my parents and my mother and father-in-law were from the same generation so I don't think I felt any.

YH: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유학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Moving on to the study abroad experience.

YH: (38:35) 그럼 처음부터 미국에 온 계기? *What was your reason for coming to the US?*

GK: 남편이 유학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남편이 공부하러 신학 공부하러.
My husband was studying abroad. To study theology.

YH: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무엇을 했나요?
What did you do while your husband was studying/taking classes?

GK: 애를 키웠어요. 네 흥승연을 키웠죠. 말안듣는 흥승연을 키웠습니다.
I raised a kid. I raised [you - the interviewer].

YH: 그럼 그때도 이제 교회랑 신앙생활을 계속 했나요?
Then did you continue your religious activities/life of faith?

GK: 그렇죠. 네.
Of course.

YH: (39:00) 그럼 어떤?
Can you give an example?

GK: 저희 이제 말했듯 어쨌든 남편의 직업 공부? 학 major? 이런 부분들이 신학이니까. 신학이어서 교회 생활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에 왔어도 또 이제 처음 왔으니까 언어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인 교회를 좀 prefer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알게 된 교회가 저희가 지금 있는게 교회 허드슨벨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살된 승연을 데리고 그 Drew에서 Hudson Valley까지 1시간 정도의 차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처음 이제 부목사의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남편은. 저는 이제 애를 키우고. 그리고 평일에 토요일 주일은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한글학교 그리고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Since my husband's job? Major? Was theology. You can't separate theology [religious faith] from church life. Since we first came to America, there was a struggle with the language we preferred a hanin (Korean) church. So there church we came to know was the Hudson Valley church. So we took Seung Yeon, who just turned 1 and drove an hour from Drew University to Hudson Valley to be an associate pastor for the first time. So during the week, my husband would study and I would take care of the child. And on the weekend, Saturday and Sunday, we would go to church and do hangul hakkyo (korean school) and bible study.*

YH: (40:07) 어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 가고 싶다 아니면 한국에 있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While you were in America, did you ever think about visiting or going back to Korea?

GK: 많이 했죠. 한국 너무 가고 싶었죠. 너무 다른 문화와 특히나 가족들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내가 배워야 할 때 참 많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할일이 아니었던 잘못된? 잘못하는? 잘 모르는. 특히나 언어적인 부분도 참 많이 이제 많이 좌우를 했고 그게 어려웠죠.

Of course. I wanted to go to Korea so bad. It was such a different culture and I had no family so I was also loney. And with a different culture, it means that there was a lot I had to learn. I would do something and it would turn out it was a mistake and something I shouldn't have done. I didn't really know. In particular, I had a hard time with language since it is very important to culture.

YH: (40:45) 처음 미국 간다는 얘기를 지인들한테 했을 때 반응은 어떤가요?

When you first told people that you were going to the United States, what were their reactions?

GK: 처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결혼 전에 유학 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유학가면은 어쨌든 남편은 공부한다고 하지만 너는 되게 힘들텐데 안 갔으면 좋겠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실 정도로 네 좀 반대하셨던 부분도 있었죠. 제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In the beginning, my parents were against it. When I talked about studying abroad before the marriage, they said your husband is going there to study but it will be so much harder for you, it would be better if you didn't go. You shouldn't marry. They told me these things and were very against it, since I wasn't the one going to go study.

YH: (41:35) 본인이 느끼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때는 어때던 것 같아요? *How would you say you fel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was at that time?*

GK: 저희 왔을 때는 한국과 미국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야간 미국이 약간 동경하는 나라? **American Dream?** 갔다가 공부를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더 좋은 위치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공부하러 가면 더 좋겠지. 이런 것들.

When I came here, the relationship wasn't that bad. America was a country that Korea looked up to? The American Dream? You would go there to study and come back to a much higher place in society. It would be better to study there. Things like that.

YH: 그럼 미국에서 살면서 그 생각은 아직 있는 거 같아요?
Has that point of view changed?

GK: 많이 변했죠. 아 허허허 한국이 훨씬 좋아요.
It changed a lot. Hahaha I like Korea way better.

YH: 그러면 이제 살면서 한국 가고 싶다 해서 큰 사건 같은 거나 아니면 스토리 같은 거 있으신가요?
Do you? Then were there any stories or instances where you wanted to go back to Korea?

YH: (42:26) 다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들게 한 이제 사건들?
Any specific situations that made you want to go back?

GK: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온 해가 **9/11** 다음 **next** 해 었나요? **2000, 9/11**이 **2001**년인가요? **2001** 년이죠. 그리고 우리가 **2003**에 왔는데 **2**년 뒤엔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driver license**가 따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DMV**에 아침 **6**시반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끝나고 문 닫을 때까지도 서 있었는데 잘 안 돼 있는 경우. 우리가 무슨 약간 우리는 공부하러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약간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약간 이런 느낌. 안공서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서서 교대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 **driver license**을 따기, 받기 위해서 서류를 검사하는 과정을 몇 번을 거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미국은 살 것이 못된다 이런 네. 했죠.

We arrived in the year after 9/11. Was it in 2001? Yes, 2001. So we came in 2003, which was 2 years after. But because of 9/11, it was harder for people without citizenship to get a driver's license. So we left at 6:30 in the morning and would stand at the DMV until 4pm when they closed. And even then it wouldn't work out. We came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but it felt like they were treating us like criminals. At the security office. So, standing there with a kid, taking turns eating a sandwich, to get that driver license, we went there multiple times as they kept checking the documents. It was very tiring. This was not the way to live in America.

YH: (43:48)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처음 미국 오면서 이제 한인 교회를 많이 찾잖아요. Sense of community 같은 걸 얻기 위해서. 혹시 본인도 그렇게 한인교회가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Many people, when they first come to America, look for Korean churches to find a sense of community. Did Korean churches play the same role for you?

GK: 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멀기도 했고 교회 자체가 좀 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보통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정보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어려웠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당시에 저희 그 **Drew**라는 학교로 유학 오신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미리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check**은 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쩔 뻔했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In my case, the church itself was far away and our situation was a little different. Usually people of the same area meet at church. It would be hard to get information. But in our case, we had sunbaenims (seniors) who were at Drew. They had come in advance, for example, if my child was sick they would tell us what and how to go to the hospital. They taught us how to write a check. They gave us a lot of help.

YH: (45:00)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이제 애를 3명이나 키웠잖아요. 네 그렇죠. 가정에서 시댁이랑 비교했을 때 거기서 배운 요리나 음식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 요리를 했을 때 이렇게 reflect 아니면 많은 도움을 줬나요?

You raised three kids in America. In your family did you see a reflection of the foods and meals you cooked at your in-laws?

GK: 사실은 이제 신덕에 있으면서는 살림이 내 살림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 내가 잠깐 와서 잠깐 이따가 가는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오면서 완전히 온전한 **my core family** 이렇게 생기니까 훨씬 더 책임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남편 같은 경우도 거의 한식을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매번 집에서 더 열심히 밥이랑 국이런 음식을 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했는데. 그런 재료의 한계가 사실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인 마트를 가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멀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했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의 요리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찾아서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 음식을 많이 해먹었던.

At my in-laws it felt like I wasn't doing my own livelihood. I felt like I was briefly there and would leave soon. But then as we came to study abroad, I made my own core family and I felt a lot more responsibility. Even when it came to eating food. Especially since my husband likes hansik (Korean food) more. I always paid more attention to cooking bap and guk and things like that. But there is a limit to the ingredients. We are in a different country, and people eat different ingredients. We would go to the Korean mart but it was far and we went maybe once a month. It was a bit difficult. So, it felt similar to cooking in Korea. I would search the internet on how to make things and so we ate a lot of Korean food.

YH: (46:43) 그럼 살짝 다시 이민 얘기로 들어가면. 이민 오면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아니면 제일 후회되는 기억 같은 건 있나요? *Going back into immigration, what was the hardest thing or thing that you regret the most?*

GK: 이민을 오면서 힘들었던 거는 이민 자체가 다른 문화에 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유학을 하고 금방 갈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계속 **stay** 할 줄 몰랐으니까. 가장 첫번째 어려웠던 것은 언어의 문제.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올걸. 이런거 이런 것들이 이제 후회가 되는 점이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언어에 관한 부분들 언어를 좀 더 [??]하면 좀 더 적응하기가 쉬웠을 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죠. 근데 유학생할 하는 동안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만난 사람들 다 학교 내에서 한국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크게 느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Immigration itself is hard because you are going into a whole different culture. I actually thought that studying abroad would be quick and we would go back quickly. I didn't know we would stay this long. The first thing that was hard was the language. I should've studied more English. I regretted that. And I think for the language, if I had done some more work, or studied harder, would it have been easier? I thought that. But, while studying abroad, all the people I met at the school were Korean and so I didn't think it was too difficult.

YH: (47:57) 그러면 다시 음식의 얘기로 돌아가면. 기독교라는 religion에서 중요시하는 아니면 본인이 이제 connect 하는 음식 같은 건 있나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상관없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먹었던 음식이나 교회 가면 생각나는 음식. *If we go back to talking about food, is there a food that you relate to religion or connect with through it? In America or Korea, it doesn't matter. Maybe something you ate a lot at church.*

GK: 아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거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간에 이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nostalgia**의 향수 이런 분이지 어떤 특별한 음식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there was. Overseas, one of the main reasons people look for Korean churches is because of the food and the opportunity to eat. There is a nostalgic scent when eating Korean food but nothing particular.

YH: (48:55) 한국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음식을 한번 얘기하자면 김치잖아요. 한국에서는 김장을 많이 했나요?

A food that is special to Koreans is kimchi (fermented cabbage). Did you do Kimjang (process of preparing and preserving kimchi) in Korea?

GK: 많이는 안 했고 해보긴 했었어요.

Not often but I did.

YH: 가정이나 아니면 시대가서?

With your family or with your in-laws?

GK: 시댁에서
At my in-laws.

YH: 그러면 미국 와서는 김장을 많이 했나요?
Did you do it after you came to America?

미국 와서는 미국에는.. 사실 김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김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가을에 야채가 배추가 많이 있을 때 그걸 많이 걸어서 겨울 내내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은 워낙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추 하면 배추 박스. 이런 것들이 물론 값의 차이는 있지만 겨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장을 하지는 않고는 김치를 담가 먹는 거죠. 김치를. 그래서 미국에 와서 김치를 여기 박스 한 10포기. 이런 식으로 담아서 먹었죠.

In America, well kimjang is the process when you collect cabbages when it's plentiful in the autumn and make it to last all of winter. But in America, sinc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climates, there would still be cabbage boxes. Of course there was a difference in price but it didn't mean there wouldn't be cabbage in the winter. So I didn't do kimjang but I made kimchi. So I would buy like 10 boxes and make kimchi.

YH: 직접 담갔나요?
By yourself?

GK: 네. 처음에 사먹었어요 잘 못하니까.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사먹는게. 그래서 담가 먹다가 또 뭐 힘들면 사먹기도 하다가.

Yes. In the beginning we bought it. But it was too expensive to keep buying. So I would make it and if it was too tiring I would also buy it.

YH: 그러면 말을 듣기로는 미국에서 먹은 한국음식은 주로 본인이 직접 하는 음식이었던가요?
Then what I am understanding is that most of the Korean food you ate in America, you made yourself?

GK: 네 그쳐. 처음 유학와서는 근처에 한인 레스토랑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멀리 있고 비싸니까. 못 갔던 것 같아.

Yes. In the beginning there weren't a lot of Korean restaurants. It was all too far and expensive. So we didn't go.

그럼 교회에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본인이 요리하셨나요? *Then at church, did you also cook for the church?*

GK: 아니 그 당시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고 부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막 하지는 않고. 교회에 가면 교회 어른들이 돌아가는 그런 감당하는 날짜가 있으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반찬 국 이런식으로 해오셔서. 저희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No, at that time I was considered a student and we were associate pastors. So I didn't do it. The adults would have dates they were in charge of and would rotate making rice and soup. We just went and ate.

YH: (51:13) 그러면 이제는 요리를 주로 즐기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야 하나니까.

Do you enjoy cooking? Or do you just do it because you have to?

GK: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I do it to eat and live.

GK: 근데 가끔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요리가 너무 싫어서. 아 이거 너무 싫는데 너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해야 하나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싫는데 시키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내 삶에 입부할까?

그렇습니다.

Sometimes I make something because I want to and I can. It doesn't mean I hate cooking, nothing like that. But I just do it because I have. It's not like I hate it and someone is making me do it but it also isn't that I really love doing it. It just is a part of my life.

YH: 제가 알기로는 교회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는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있어요.

From what I know of food is a very important part of Korean Churches in America.

GK: 네 그렇습니다.

Of course.

YH: (52:01) 혹시 그게 왜 미국 교회랑 아니면 어떤 점이 다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why that might be so different from the American church?

GK: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살아가도록 살아왔던 한국 음식을 자주 해먹을 수가 없고 해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그리고, 재료를 재료 같은 것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만들어 먹는 게 여의치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교회를 올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한국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고 한국음식에 대한 향수를 그런 그리움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것들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리움들을 달래고 또 같은 민족 같은 고양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그 어려운 이민 생활의 낙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I think that attitude towards food is different. In America, there really isn't the opportunity to eat the Korean food that we have eaten for our whole lives. There are ingredients that are hard to come by, and cooking isn't the option for some. So when Koreans come to church there are many that come for religious life but there are also people that come to see other Koreans to get help and for the chance to soothe their longing for Korean food and community. So, I think the joy of immigration life is being able to share food with people of the same country and soothe their longing with the company.

YH: (53:26) 그러면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Even Korean churches in Korea share food, do you think there is a special reason for this?

GK: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침에 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인사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침 드셨나요? 이렇게 먹는 것을 어려운 상황에서 한 끼를 먹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먹어왔는지 밤새 안녕 하셨는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 인사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게 서로의 정을 나누고 그리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In general I think there is an importance of sharing food in Korean culture. In America they might say good morning but in Korea we say Did you have breakfast? Or did you eat yet? Because they know how important it is to eat and have a meal during hard times, so it's like a greeting asking how you have been or if you are making it through the night. Coming together and sharing food is a way to share affection and improve relationships.

YH: (54:27) 그러면 다른 topic으로 들어가면 이제 혹시 집밥이나 아니면 엄마 손맛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oving on to a different topic, what do you think about jibbap (home-cooked food) or eomma sonmat (the taste of food made by a mother's hand)? 영어로 question이 어떻게 됐냐면. How did your mothers 아니면 how did your understanding of 집밥 or 엄마 손맛 change from when you were younger, to say, after you got married and had your own family?

What the question is in English is How did your mother's or how did your understanding of jibbap and eomma sonmat change from when you were younger, to say, after you got married and had your own family?

GK: How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바뀐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엄마 엄마의 아래 있을 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을 때의 입맛은 아무래도 이제 엄마와 아빠의 기호? 무엇을 좋아하는 **favor** 이런 것을 따라서 이제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고향이 경상도 였기 때문에. 경상도 음식? 약간 한국도 지역적으로 음식 특색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엄마가 경상도 분이시고 아빠는 충청도 분이신데 경상도는 간을 약간 좀 세게 해요. 애를 들면 다 그럴진 않지만 조금씩 특징 살펴보면 충청도는 좀 이렇게 심심한? 그래서 엄마가 아빠의 입맛을 많이 맞추셨던 것 같아요. 엄마 하는 반찬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되게 심심하게 너무 짜지 않게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가족이 대가족이 되고 제가 또 이제 요리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배웠던 것보다는 지금 이때 원래 있던 **family**를 마이 **husband family** 남편의 그 남편의 **family**가 가지고 있던 가족 문화의 음식에 제가 그냥 그것을 하게 된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우리의 **core family** 지금 저와 남편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제가 음식을 만들고 **lead**하는 이런 입장에서 음식을 하게 되는데 뭐랄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터넷에서 많은 **recipe**들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재밌다. 맛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먹어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I am not sure about how. But I know it has changed. When I lived with my mom, I ate the food that my mom made me. So my ibmat (taste) was based on my mom and dad's. Like

what I liked or favored followed my mom and dad. Our hometown was Gyeongsang-do (Gyeongsang Province) so we ate Gyeongsang-do food. Korea has slightly different regional food characteristics. My mom is from Gyeongsang-do and my dad is from Chungcheong-do and Gyeongsang-do food has stronger seasonings. For example, it's not all like that but when you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Chungcheong-do is more bland. So my mom tried to match my dad's taste a lot. Like my mom's banchan, it would be a little bland and not very salty. When I moved to Seoul and my family became bigger, I was supposed to be the one to cook. So rather than cooking based on what I knew from my family, I learned my husband's family culture and cooked based on what my husband's family was used to. And then when in my own core family, myself, my husband and my children, I started to make new attempts. I make food from the perspective of a leading member of the family. There are so many recipes and methods on the internet so I slowly started to enjoy it little by little. This looks good, so I would try and eat it. Things my children like, what I like, it became centered around those things.

YH: (57:45) 남의 배려가 참 많아지는군요. 요리를 할 때.

I see you learn to be considerate of others when you cook.

GK: 어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지만 음식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즐겨서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해야지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먹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는 게 굳이 배려라기보다는 그런게 더 훨씬 경제적이다? 정신적으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죠? 저의 개인적인 답입니다.

I like to eat but I don't think I enjoy cooking as much. Because I am not the type to cook because I want to eat it. So instead of making things because I want to, I focused on what others liked. Things the children like. Things they ask me to make that are easy, rather than being considerate, it is more economical. Mentally. That's what I think. My personal answer.

YH: 그럼 뭐 일단 여기까지는 준비된게 끝이고요. 만나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I see. This is all I have prepared. Thank you so much for meeting with me.

GK: 네.

Yes

YH: 안녕히 가세요.

Goodbye.